

오하라노 신사

오하라노 신사는 나라의 유명한 가스가타이샤 신사와 역사적인 관련이 있어서 ‘교카스가’(교토의 가스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가스가 신사에서 모시고 있는 신은 가스가다이묘진으로 전통적으로 흰 사슴을 탄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하라노 신사 경내는 벚꽃과 창포, 수련, 단풍의 명소로서 인기가 있으며, 사슴을 모티브로 한 조각상과 부적, 에마(신사나 절에 봉납하는 그림이 그려진 목판)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배길가와 도리이 바깥의 주차장 근처에 있는 두 곳의 찻집에서는 전통적인 쥬떡을 팔고 있어서 참배 후의 간단한 먹거리로, 또는 집에 가져가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역사

일본 전국에는 많은 가스가 신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하라노 신사는 총본사인 가스가타이샤 신사에서 가스가다이묘진의 분령을 옮겨 나누어 모신 최초의 신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784 년, 일본의 수도는 헤이조쿄(현재의 나라)에서 나가오카쿄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귀족인 후지와라 가문의 수호신인 가스가다이묘진을 모시는 신사로서 새로운 중앙 정부와 가까운 곳에 오하라노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후지와라 가문은 수 세기에 걸쳐 조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많은 남자들이 고위직에 올랐고 많은 여자들이 황후가 되었습니다. 가스가타이샤 신사와 마찬가지로 오하라노 신사는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794 년에 수도는 다시 헤이안쿄(현재의 교토)로 옮겨졌지만, 그 이후에도 오하라노 신사의 역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스가다이묘진과 후지와라 가문

가스가다이묘진이란, 천등의 신 다케미카즈치노미코토, 군신(軍神) 이와이누시노미코토, 후지와라 가문의 조상신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와 그 아내인 히메오카미 이렇게 네 명의 신을 나타냅니다. 아메노코야네노미코토의 아들인 아메노오시쿠모네노미코토를 함께 모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신들은 모두 일본의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정치와 수호, 지혜, 여성이 좋은 인연을 맺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하라노 신사는 역사적으로 후지와라 가문의 지원과 황실의 비호를 받아왔습니다. 후지와라 가문의 당주를 외조부로 둔 몬토쿠 천황(827~858 년)은 850 년에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을 조영했습니다. 후지와라 가문에서는 딸이 태어나면 황후로 간택되기를 빌며 오하라노 신사에 기원했고, 기원이 이루어지면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훌륭한 행렬을 동반하여 참배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행렬에 대한 이야기는 후지와라 가문의 분가 소속 여관(女官)이었던 무라사키 시키부(973~1014 년 추정)가 지은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등 역사적인 기록이나 시,

소설에도 등장합니다. 저명한 가인인 아리와라노 나리히라(825~880 년)는 후지와라가문 여성의 참배에 동행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시가를 읊었습니다.

(시가의 번역문)

오시오노야마 산 기슭에 있는 오히라노 신사의 신들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나긴 행렬을 보시고
분명 신들의 시대를 떠올리시리라

(시가의 원문)

大原や
小塩の山も
けふこそは
神代のことも
おもひいづらめ

경내

도리이를 지나 신사 경내로 이어지는 참배길 옆에는 고이사와노이케 연못과 연못 위에 걸린 운치 있는 붉은색 다리가 있는데, 연못 건너편에는 아메노오시쿠모네노 미코토를 모시는 와카미야 신사가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수양벚나무는 가지에 둥글고 큰 꽃송이가 많이 피기 때문에 ‘센간자쿠라’(천 개의 눈이 있는 벚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아 ‘환상의 벚꽃’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만개한 센간자쿠라를 본 사람은 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참배길을 따라 더 들어가면 구리로 만든 사슴의 입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데미즈야가 있어서 참배하기 전에 여기서 손과 입을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씨름판이 있는데 9 월의 미타카리사이 축제에서 열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참가하는 행사 ‘가미즈모’에서 사용됩니다. 이 축제는 신에게 풍작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개최되며, 1717 년 이래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전

참배길에 있는 세 번째 도리이 앞에는 1822 년에 지어진 본전이 있습니다. 본전은 가스가즈쿠리 양식(정면 계단 위에 차양을 달아 용마루에 X자 모양으로 교차시

킨 나무와 마룻대에 장식으로 다는 통나무를 만듬)으로 지어져 있으며 중앙에는 봉납과 기도를 위한 전각이 있고, 그 양쪽에는 2 채씩, 합계 4 채의 신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신전에는 가스가다이묘진이 각각 한 명씩 모셔져 있습니다. 본전 뒤로는 키가 큰 편백나무가 보이는데, 흰색과 붉은색의 전통적인 신전과 자연스러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몇몇 말사가 있어서 병의 치유와 액막이, 오곡 풍양, 장사 번성, 건강, 장수, 자식 점지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신의 사자인 사슴

가스가다이묘진은 후지와라 가문의 조상 앞에 흰 사슴을 탄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전설이 있어서 사슴을 신의 사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라노 신사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신화 속의 짐승 고마이누가 아니라 수사슴과 암사슴 석상이 본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적과 고슈인초(御朱印帳, 신사나 절에 방문한 후 방문을 증명하는 날인을 받는 수첩), 에마, 길흉을 점치는 제비도 사슴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